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2. 10.(금) 배포</p>			
보도일	<p><b>2021. 12. 10. (금) 브리핑 시(9:40 예정)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12. 10.(금) 브리핑 시 (9:40 예정) 보도 가능</b></p>				
담당과	교원양성연수과	담당자	과 장	채홍준	(☎ 044-203-6369)
			서기관	최지웅	(☎ 044-203-6467)
			주무관	안병희	(☎ 044-203-6464)

##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 교원 '초·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' 발표

- ◆ 현장 이해·경험 넓히도록 예비교원 '교육실습 학기제' 도입
- ◆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하여 다(多)교과 역량 함양 지원
- ◆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감축하여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,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'초·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' (이하 '발전방안')을 발표하였다.

○ 작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를 시작으로, 올해 '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\*' (2021. 5~10월) 및 대국민 토론회\*\* (총 4회) 등을 통해 교육주체, 사회 각계 구성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논의해 왔다.

\* 교육청, 교원양성기관, 교원단체, 예비교원, 학부모, 전문가 등 24명 구성

\*\* (1차) 주제별 토론회: 교원양성 교육과정, 실습학기제 (2021.7.16.)

(2차) 주제별 토론회: (중등교원 양성체제) 융합전공, 양성경로 정비 (2021.8.6.)

(3차) 주제별 토론회: (초등교원 양성체제) 교육과정 다양성 확보 (2021.8.20.)

(4차) 전체 주제 대상 공청회 (2021.9.15)

- 해당 논의를 거쳐 마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과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'발전방안'으로 구체화하였다.

#### 혁신위원회, 대국민 토론회 등 현장 주요 의견

- ▶ 교원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교육실습 확대·강화 방향에 대체로 동의하나, 지도 교사·실습학교 부담 확대에 따른 실질적 지원체계, 교육실습 생태계 구축 필요
- ▶ 학교와 학생의 변화에 따라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, 양성과정보다 현직교사 재교육 과정과 연계한 제도 설계에 대해 긍정적 평가
- ▶ 중등 양성규모 감축이 시급하며, 기관별 특성화를 통한 기능 재구조화 필요
- ▶ 인구 감소에 대응한 초등 양성 정원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고, 전 교과 지도와 생활지도라는 초등 전문성에 더하여 기초학력 지원, 교과 융·복합 등의 역량 심화 요구
- ▶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개혁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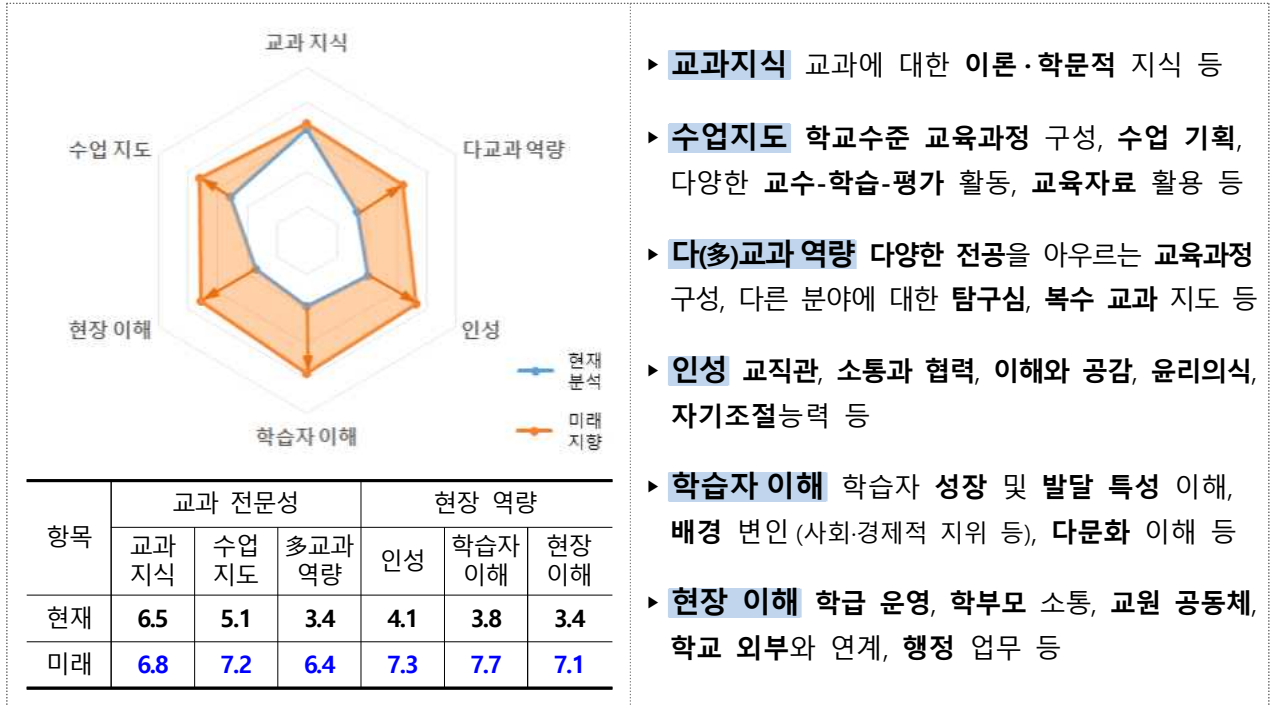
### (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 )

- 4차 산업혁명, 인구구조 변화,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 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학교와 교육현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.
-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,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\*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이 요청된다.
  - \* 학생 성장 지원, 융합수업·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혁신 및 교육과정 재구성, 기초학력 보장, 위기학생 상담·지원, 소통·협력, 학교 혁신 등
- 이를 위해 양성과정에서 함양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는 교과 지식, 수업지도, 다(多)교과 역량 등 교과 전문성과 인성, 학습자 이해, 현장 이해 등 현장 역량으로 조사되었다.
  - 다만 현재의 양성 수준과 미래 요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,
  - 학습자 이해를 통한 맞춤형 지도, 학생 배려·공감, 교원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적 대응, 학부모 소통,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·복합

역량 등에서 그 차이가 컸으며,

- 교과지식, 수업지도는 상대적으로 충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

※ **교원 양성과정 지향점 설문** (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집중숙의단 대상 설문)



- 이러한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에 대한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, 지금까지의 교사 양성체제의 우수성을 살리면서도, 미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정하였다.

< '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' 기본 방향 >

학교 현장 이해 제고	미래 대응 전문성 확장	교원 양성규모 적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교육실습 확대·강화</li> <li>• 현장참여 교육과정 운영</li> <li>• 학습자 이해, 적·인성 검증</li> <li>• 교육청 연계·협력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(多)교과 역량 함양</li> <li>• 석사수준 재교육 (1급 정교사 자격연수 연계)</li> <li>• 교육대학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(종합대학과의 연계 활성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초·중·고 수급계획 고려, 정원 관리</li> <li>• 중·고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사범대) 공통과목 중심</li> <li>- (교직과정) 전문교과, 선택과목 등</li> <li>- (교육대학원) 재교육 기능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

- 위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, 법령·제도 정비, 점검·환류 체계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여 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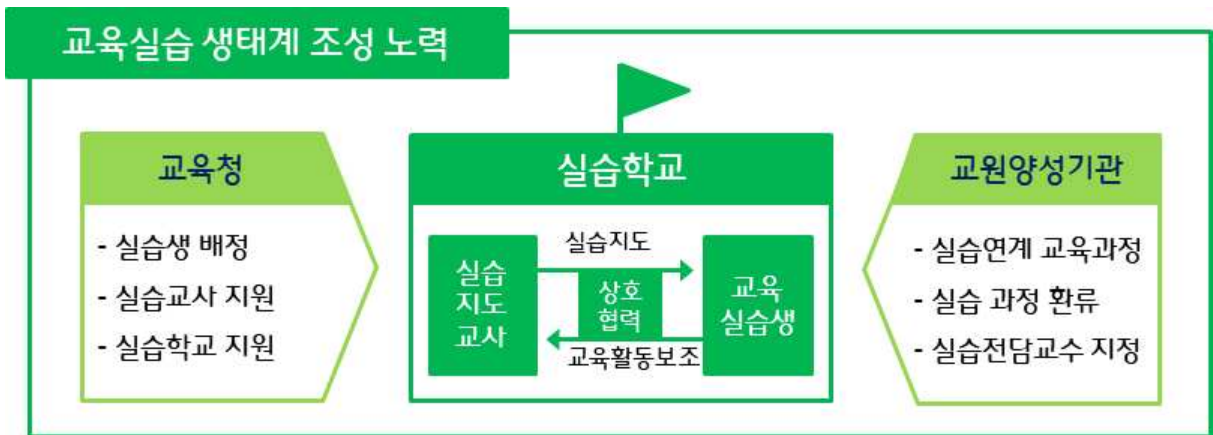
## 〈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 〉

- 그간 정책연구,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① 현장 이해 제고, ② 미래 변화 대응, ③ 인성 등 기본소양 함양 등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으로 합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교원양성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.
- (현장 이해 제고)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, 현장교사의 겸임·초빙 교수 위촉 등을 통한 강의 참여 활성화, 양성기관 소속 교수의 학교 현장 및 교육과정 연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적극 권고하고, 이를 역량진단에 반영할 예정이다.
  - 또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과목에도 현장 연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세부기준(교육부 고시)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.
- (미래 변화 대응) 원격교육, 인공지능(AI)·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의 발전과, 기후·환경 위기, 포용 사회,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회상의 변화 등 미래 소양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, 이를 6주기 역량진단 지표로 신설\*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  - \* ‘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소양 교육과정 운영’ 지표 등 신설 검토
- (인성 등 기본소양) 윤리의식, 인성 등 바른 교직관을 갖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적·인성 검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  - 2차례 문답지로 검사하는 현행 적·인성 검증 방식을, 교원양성 위원회에서 대학생활 기록(징계, 실습 등), 결격사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고,
  - 교육실습 및 임용시험\*에서의 부적격자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.
    - \* 2차 시험 과목별 부적격자 기준 마련,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근거 마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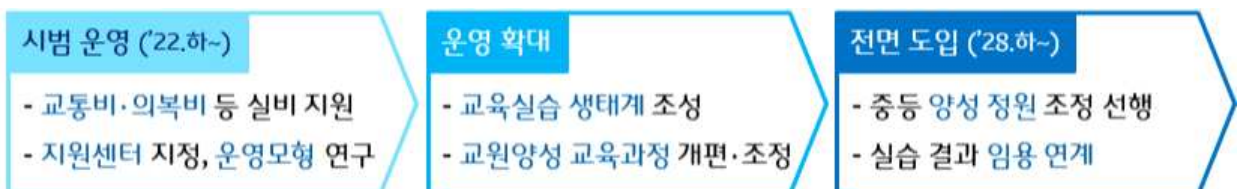
## 〈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〉

- 현장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실습 기간 (중등 기준 현재 4주간)을 확대하여 ‘실습학기제’를 도입한다.
  - 예비교원은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·지도·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, 학교·교실·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, 교직관을 형성·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.
  - 실습생이 학교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,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, 이를 교육청과 양성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하여, 교육실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- 특히, 실습 경험과 이론이 연계될 수 있는 운영모형\*을 개발하고, 이를 연구 지원할 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.

\* (예시) 주 3~4일 학교현장 실습 및 주 1~2일 실습 연계 강의 이수 등



- 교육실습 학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, 교원 양성규모의 적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.



## 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연계한 다(多)교과 역량 함양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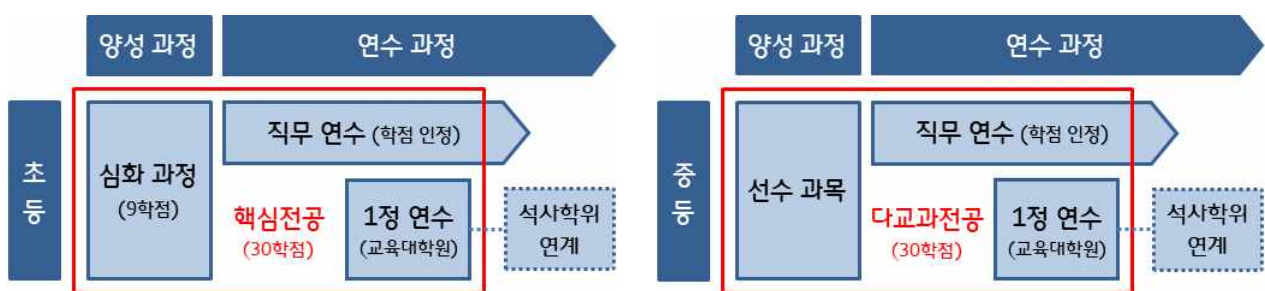
- 미래 사회의 가치 다원화, 교육과정의 변화, 학생 선택권의 확대 및 소규모 학교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,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만을 갖추는 것을 넘어 다른 분야에 대한 탐구심, 교과 융합, 복수교과 지도 등 다(多)교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- (1급 정교사 자격연수 확대·개편) 운영 기간(현행 90~135시간) 및 교육내용을 확대·개편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하여, 지속적인 자기개발 역량 함양과 향후 석사 학위과정 연계 등 생애주기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.
  - 이를 위해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기본 역량 및 기존 교과 심화 이외에도, 교과 융·복합,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, 통합교육(특수)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연결·통합하는 현장 전문성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(융합전공 신설) 1정 연수(교육대학원 위탁)와 양성과정(학부 선수과목), 직무 연수(학점 인정) 등을 연계하여 ‘융합전공\*’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.
  - \* (중등교사) 기존 부전공 제도를 ‘다교과전공’으로 명칭 변경 및 개선  
(초등교사) 기존 심화과정을 확대·보완하여 ‘핵심전공’으로 신설·개편

### < 융합전공 이수 교육과정 구성 예시 >

학부 선수과목	직무연수 학점인정	1급 정교사 연수
관심 분야 관련 과목 추가 이수 (초등) 심화과정 (중등) 다른 전공, 연계전공 등	교육감 지정 과정을 자율 이수	교육대학원에 위탁하여 융합전공 관련 학점 이수
(과목 예시) 교과 기초, 개론 등	(과목 예시) 교과 내용 등	(과목 예시) 융합 교육과정 구성의 실제, 수업사례 연구 등



- 중등교원은 ① 사회, 과학 등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자격 (표시과목 광역화)을 갖추도록 하거나, ② '다교과전공'을 이수하여 다른 교과 자격을 추가로 갖추거나, ③ 유사·연계과목 연수를 통해 다양한 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,
- 초등교원은 전교과 지도 역량과 함께 교직 경험과 관련 이론을 통합하는 '핵심전공' 이수를 통해 교과 융·복합 등 현장 수요에 특화된 전문성을 추가로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

### 〈 중등교원 양성기관 기능 특성화 〉

-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, 교원양성기관별 특성, 중등 교원 과잉 양성, 교원 재교육 수요 (1급 정교사 연수 개편, 생애주기 연수 연계 등)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을 특성화하고, 양성규모를 적정화하고자 한다.
  - \* 2020년 중등 교원자격증 취득 인원 19,336명, 2022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인원 4,410명
-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\*은 사범대와 사범계학과(교육과)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양성하고,
  - \*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 (도덕·윤리, 일반사회, 지리, 역사), 과학 (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), 체육, 음악, 미술, 정보·컴퓨터, 기술, 가정 등
-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하여 양성규모를 축소하되,
  - 고교학점제, 학생 선택권 확대,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과목, 전문교과, 첨단·신규 분야 등의 교원 양성을 담당하여 그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.

- 이를 위해 신규분야 교직과정은 입학정원 30% 내 (현행 10% 내)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, 표시과목 신설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.
- 교육대학원은 1급 정교사 연수, 이후 석사과정 연계, 생애주기 연수 등 교원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고, 교사 전문성 심화를 위한 박사과정 (Ed.D)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다.
- 이와 관련, 6주기 (2022~2025)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기관 특성화 방향과 중등 양성정원 감축 방안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,
  -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, 환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  - \* (일정 예시) ('22.上) 6주기 기본계획 수립 ▶ ('22.下) 교대 컨설팅 ▶ ('23) 일반대학 컨설팅 ▶ ('24) 교대·일반대학 진단 ▶ ('25) 전문대학 등 진단

### ( 초등교원 양성과정 다양성 확대 )

- 교육대학의 소규모 운영과 동질집단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, 인근 종합대학과의 연계·공동 교육과정 운영 (학점 교류), 연합 동아리 (인적 교류) 등을 활성화하여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.
  - \* 국립대학 육성사업, 6주기 역량진단 등을 통해 대학 연계망 활성화 지원
- 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, 행·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관련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.

※ 사례 예시

- △ (종합대학 내 목적형 양성) 교대·종합대학 통합 시, '종합교원양성대학'으로 지정하고, 대학 내 자원 배분 등의 원칙 마련 검토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개정)
- △ (교대 간 연합대학) 특정 학기/학년에 대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



## 〈 향후 추진 계획 〉

- 이번 발전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, 관련 법령 개정, 예산사업 추진 등을 책무성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.
  - 2022년 상반기까지 ‘실습학기제 시범사업 운영계획’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
  - 양성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「6주기 (2022~2025)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」을 2022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.
  - 또한 「교원자격검정령」, 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,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.
  
-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“학교 현장의 변화에 예비교원들이 잘 준비하는 것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바른 길이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
  - “교원양성기관과 (예비)교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리고,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미래 교원을 꿈꾸는 예비교원들의 마음에 응답하고자 한다.”라고 밝혔다.
  - 또한, 성기선 교원양성체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“혁신위원회,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, 미래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제이며, 함께 소통하고 논의했던 이 과정이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.”라고 언급하였다.

【별첨】 초·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